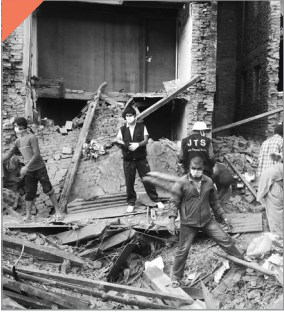


# Contents | 목차



## 해외소식

- 02 **네팔 지진피해 긴급구호**  
네팔 지진피해 긴급구호를 다녀와서 - 장도연
- 07 **나마스페, 동게스와리(인도)**  
인도에서의 80일 - 정유진
- 10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만타부 학교 교실 2칸 증축 프로젝트 - 박영일
- 16 **필리핀 마라뵈트 긴급구호**  
운동장, 놀이기구, 그리고 아이들 - 원석환



## 국내소식

- 18 **함께 나누는 사랑**  
2015년 어린이날 전국 거리모금  
법륜스님과 함께 한 두북 어른신 봄 나들이 - 김은주  
거제도 애광원 봄나들이를 다녀와서 - 최영
- 24 **함께하는 사람들**  
거리에서 구걸하던 아저씨가 준 깨달음 - 이선숙  
인간나무에 아이들의 꿈을 실어 - 허상의  
색소폰 연주와 함께한 JTS거리모금 - 서정연  
자운JTS, 평화리더십 동아리와 함께한 거리모금 - 박용숙



## 활동터소식

- 32 **해외, 국내 JTS 뉴스**  
국내/인도/필리핀/라오스
- 37 **후원인의 소리**
- 38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퍼낸날 2015. 6. 8 퍼낸이 법륜 만든지 박지나, 김기진 퍼낸터 JTS  
도운이 현희련, 최경순, 윤미옥, 신인환, 김희선, 김현지, 김옥희, 임금이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73-6128

주 소 137-875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서초동) 전화 (02)587-8756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int.org 홈페이지 www.jts.or.kr



지난 4월 25일, 규모 7.8에 달하는 대지진이 산악국가 네팔을 덮쳤습니다. 많은 주인이 가족과 집을 잃고, 여진의 공포에 집을 버리고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JTS는 네팔에 인접한 인도에서 긴급구호팀을 파견하여 구호물자를 배분했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장도연 사무국장

4월 25일 지진 당일, 갑자기 학교 건물이 흔들렸다. 학교 복도에서 시험감독을 하고 있던 교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수업하던 아이들을 모두 운동장으로 집합시켰다. 순식간에 아이들이 모두 운동장으로 뛰어나왔다. 건물과 땅이 울렁거렸다. 그때, 네팔에서는 7.8의 강진이 왔던 것이다.

26일 저녁에는 출발할 수 있는 간단한 준비를 하고, 27일 새벽에 한국인 활동가 1명, 인도인 활동가 1명, 총 3명으로 긴급구호팀을 꾸려 인도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육로로 네팔 국경으로 향했다. '파트나'를 거치고, 국경도시 '락솔'을 거쳐 국경을 넘었다. 새벽 4시에 출발을 했는데도 네팔 국경에 도착하니 오후 6시가 넘었다. 출입국 절차를 마치니 날이 어두워졌다.

네팔 국경에서 하룻밤을 묵고, 새벽 4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로 출발했다. 국경 도시 '빌 간지'에서 카트만두로 들어가는 주요 도로가 산사태로 막혀, 산으로 산으로 연결된 길을 따라 카트만두로 들어가야 했다. 우리를 태운 15인승 도요타 구식 승합차는 거의 곡예를 하는 것처럼 높은 산허리를 넘고 넘었다. 가는 길 내내 창밖 풍경을 보면서, 이곳에는 어떤 지진 피해가 있는지를 살펴보며 달렸다.

'헤타우드'라는 도시를 지나 카트만두로 들어갔다. 상태가 좋지 않은 산길에 심 없이 차들이 지나갔다. 카트만두로 들어가는 차들은 거의 없고, 차와 오토바이 대부분이 카트만두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었다. 우리가 잤던 숙소 직원도 사람들이 다들 카트만두에서 빠져나오는데 왜 카트만두로 들어가느냐며 우려하는 목소리였다.

오전 10시경, 카트만두 도시에 들어가니, 입구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다. 승합차



지진으로 무너진 주택. 산간에 벽돌로 지은 집이 많이 피해가 컸다.

가 서자, 차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모두 카트만두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나가는 차편을 구하기 위해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우르르 몰려들고 있었다.

카트만두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먼저 카트만두 지진 피해 지역을 돌아보기로 했다. 길 양쪽 사이 사이에 건물이 넘어져 있고, 군인들이 굴착기로 현장 철거를 하는 곳도 보였다. 어떤 곳에는 아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엄마도 있었다. 넓은 공터에는 불안함에 집에서 잘 수 없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밖으로 나온 듯, 텐트가 즐비하게 서 있고, 상점들의 문은 거의 다 닫혀 있었다.

카트만두에서 지진으로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이미 군인들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고 일반인의 접근은 막고 있었다. 인명 피해가 있는 가족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건물 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미 금이 간 건물도 많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도 오후가 되니까 태연하게 공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혹시 현지에 먹을 것이 없을까 봐 사 왔던 달걀 20개가 무색하게, 과일 장수도 나타나고, 옥수수 파는 사람, 아이스크림 장수까지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다. 넓은 공터엔 급식 줄이 길게 늘어서고, 곳곳에 급수 차량이 식수를 제공하고 있었다.

지진이 나고 워낙 많은 인명 피해가 있어서 거의 죽은 도시와 같지 않을까 상상을 했었다. 국내 주요 일간지 뉴스엔 제대로 서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다는 기사까지 있어서, 거의 암흑의 도시를 상상하고 갔었다. 그런데 네팔 사람들은 내 생각과는 달리 밝았다. 서로 돕고 있었다. 텐트촌 주위의 쓰레기를 줍는 종교인들과 청년들도 있었고 서로 밥을 먼저 먹으려고 한다든지, 물을 서로 먼저 받으려고 하지 않고, 가지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휘발유를 사기 위해 오토바이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도 소요가 일어난 날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

29일 새벽, 카트만두 다음으로 피해가 크다는 이번 지진의 진원지 '고르카' 지역으로 출발했다. 5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하니, 한국 구호단체와 한국 언론사 사람들도 보이고, 군인들, 네팔 지역 NGO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마을은 사륜구동 차량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고, 걸어서 2~3일은 가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군인들이 산사태 난 곳을 수습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했다. 식량은 헬기 3대로 공급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차로 들어갈 수 있는 만큼만 들어가서 직접 걸어갔다. 직접 마을의 집집이 들어가 상황을 살펴보았다. 밖에서는 멀쩡해 보이는 집도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이 다 금이 가 있었다. 네팔 사람들이 산간지역에 많이 살고 있고, 집들은 대부분이 흙과 돌로 지어져 있어 피해가 더 컸다. "집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우리가 염소 집, 닭집에 살고 있어요." 하며 사는 곳을 보여주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겠구나 싶었다.



잔해 정리작업을 돕고 있는 JTS 봉사자들

30일 새벽, 고르카에서 '포카라'쪽으로 한 시간 넘게 떨어진 '하르비'로 갔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간 후, 3시간을 걸었다. 그곳은 고르카 지역보다는 피해가 적었다. 다시 5시간 정도 차를 타고 카트만두로 돌아와, 카트만두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박타푸르' 답사를 했다.

박타푸르는 고대 도시로, 네팔의 3대 관광 도시 중 하나였다. 이곳은 오래된 건물이 많아 피해가 훨씬 더 컸다. 벽돌집들이 대부분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은 집들도 곧 무너질 듯 서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집 주변 공터로 나와서 밥을 해 먹고 있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식량과 천막이었다. 이들은 못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식량, 옷가지며 모든 것이 무너진 집 속에 들어 있어 하루아침에 이재민이 된 사람들이었다. 카트만두나 고르카는 우리가 피해 지역, 피해당한 사람들에게 바로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이곳은 우리가 바로 접근해서 사람들의 삶을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부터 바로 조사 작업에 들어갔다. 두 명은 현장에서 조사작업을 하고, 한 명은 시장에 가서 주식인 쌀과 렌틸콩의 시장조사를 했다. 실제 쌀을 살 수 있는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봐야 했다. 쌀을 살 수 없다는니, 쌀 가격이 3배 이상이라느니 하는 떠도는 말들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들리는 이야기와는 달리, 식량이 재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상점들이 하루가 다르게 활성화되고 있었다.

우리 긴급구호팀이 네팔과 거의 같은 문화권인 인도에서 왔기 때문에 힌디어가 통하다 보니, 다른 단체들보다 훨씬 쉽게 현장 곳곳에 접근할 수 있었다. 다행히 박타푸르 지역 NGO 회원 한 분을 만났고, 그분이 박타푸르 곳곳을 안내해 준 덕분에 더 쉽게 조사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구호물자를 어느 가구는 주고 어느 가구는 안 줄 수 없으므로, 개별 가구에는 식량



인도JTS 긴급구호팀 활동가들

지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단체로 급식하는 곳만 찾아다니며 실제 식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하루 식량이 얼마나 필요한지 세세하게 조사해 들어갔다. 어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팀은 아침에 시장으로 식량을 구매하러 가고, 한 팀은 다시 현장 조사를 했다. 오후에는 가지고 온 식량을 배분했다.

5월 1일, 인도에서 한국인 활동가와 인도인 활동가 5명이 추가 파견됐다. 훨씬 힘이 실렸다. 그래서 한 팀은 박타푸르에서 5일간 우리가 파악한 단체 급식소를 대상으로 일주일간 쌀과 렌틸콩을 지원하고, 또 한 팀은 다른 곳으로 답사를 다녔다.

‘봉그마띠’, ‘코크나’ 지역은 다 같이 답사를 했다. ‘카브레 레왈리’ 지역도 3번에 나눠서 답사했고, ‘카브레 만단’ 지역은 5명이 인도로 돌아간 후, 한국인 2명이 5시간을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답사를 다녔다.

5월 12일, JTS 박지나 대표님이 현지에 와서 같이 답사를 나가는 길에 규모 7.4의 강진이 왔다. 두 번째 강진에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첫 번째 지진 이후 문을 열었던 상점들도 대부분 다시 문을 닫았다. 지난 지진으로 무너지지 않았던 집들이 이번 지진에 상당수 무너졌다.

방에 누워 있으면 침대가 흔들렸다. 여진이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되었다. 네팔 사람들은 두려움에 힘들어했다. 우리가 차를 빌렸던 운전기사의 여동생은 두 번째 지진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진 3일 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있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두렵고 놀란 가슴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것이다. 여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박타푸르에는 주로 식량 지원을 하고, 카브레 레왈리 지역에는 천막 500개를, 카브레 만단 지역에는 천막 200개와 식량을 지원했다. 5월 15일, 우리는 육로로 다시 인도로 돌아왔다.

인도에서도 얼마간은 계속 마음이 쓰였다.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거나 바람이 불면, ‘네팔에도 비가 올까?’, ‘혹시 여진이 오지는 않았을까?’ 마음이 네팔 쪽으로 자꾸 달려갔다.

원래 네팔은 6월 중순 이후가 되어야 우기가 오는데, 벌써 조금씩 비가 온다고 한다. 이상기후다.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기가 되면 더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도 우기가 지나면 네팔 재건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우리의 작은 정성, 작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것이 그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마음으로, 직접 실천으로 네팔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 주었으면 한다.



## 인도에서의 80일 - 인도 생활이 좋아요!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실감하지 못한 채 도착했던 인도. 어느덧 인도에 온 지도 80일이 됐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익숙한 것 하나 없었지만, 하나씩 천천히 익혀가고 있다. 전혀 다른 삶을 마주하면서 내 마음을 돌이켜보고, 욕심을 내려놓는다. 생각지도 못한 많은 선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정유진 활동가

어느덧 인도에 온 지도 두 달이 넘었다. 언제 한국에 돌아가나 손꼽기도 했지만, 벌써 봄을 지나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매일매일 40도를 넘는 폭풍 찌는 날씨, 땀이 마를 새가 없는 나날, 계속되는 땀띠. 이런 인도에서 우리는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가져온 내 기준보다 훨씬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음을 느낀다.”

나는 마을개발팀에 배치되었다. 마을개발팀은 동게스와리 전체 15개 마을을 관리한다. 꼭 한국의 구청이나 시청처럼 인구조사도 하고 전체 마을 시설, 극빈자 구호, 쉬람단(공동노동) 같은 일들을 진행한다. 인도인 스텝 바브랄, 아룬, 빠완, 이곳을 직장으로 삼아 일하는 우리 아저씨들 열네 명, 한국인 스텝 신예슬, 박영민, 그리고 나까지. 오밀조밀 전체 마을 살림을 살아나가고 있다.

맨 처음 시작한 일은 새로운 인구조사였다. 몇 년 전에 모든 가구 조사를 하고 1,400가구 집집이 우리가 나눠준 카드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새롭게 업데이트가 필요한 때였다. 다시 모든 마을을 돌면서 정보를 모아야 했다. 한국인 한 명과 인도인 한 명씩 짝지어서 세팀을 만들었다. 학교 선생님이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마을개발팀으로 부서를 옮긴 '아짓'과 한 팀이 되었는데, 아짓은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머리가 좋아서 내 더듬더듬 힌디(인도 공용어)를 다 알아들어 준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사람들 집을 방문해 집을 둘러본다. 지금 가족 수, 월수입과 현재 재산(땅과 가축)을 묻는다. 가족들 한 명 한 명 이름은 뭔지, 나이는 몇 살인지, 공부는 몇 학년까지 했는지, 어디 아픈 덴 없는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눈다. 그렇게 그들의 문턱 없는 집들을 다니면서 그들의 삶이 저절로 내게 녹아나는 듯했다.

이곳 역시 돈이 있고, 조금씩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져온 내 기준보다 훨씬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음을 느낀다. 지금은 별로 필요한 게 없다. 이것이, 이 기쁨이 동게스와리 마을 사람들을 가까이 만나며 받은 선물이다. “바훗바훗 단아와드(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가 마무리될 때쯤 시작한 일은 극빈자 구호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마을의 극빈자를 구호하는 일이다. 이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쌀과 렌틸콩, 겨자 기름 같은 먹거리를 일 년에 네 번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매년 모든 집에서 우기 전에 진행하는 초가지붕 개량에 필요한 벧단을 조금씩 지원하는 일이다. 인도는 이제 곧 우기가 시작되어서 벧단 지원사업이 더 필요했다. 그래서 이번엔 벧단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동게스와리 15개 전 마을을 한 바퀴 쭉 돌면서 각 마을 리더를 만나고 벧단이 필요한 극빈자를 물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묻고 파악했다. 올해엔 마을마다 네 가구씩, 총 60가구에 벧단을 지원했다. 근데 이번 일로 마을을 다닐 때는, 인구 조사할 때와는 느낌이 조금 달랐다. 주로 마을의 노인, 장애인, 과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동게스와리의 밑바닥을 만나는 기분일까. 인구 조사할 때 본 사람들의 여유로움보다 위축되고 어두운 표정들을 주로 볼 수 있었다. 계속 들었던 마음은 더 많은 사람

에게 더 많이 주지 못하는 미안함이었다.

힌디도 많이 늘어서 여기 사람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 같이 일을 준비하고 회의도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과 만나면 좋다. 매일매일 웃는 얼굴로 나마스떼 하는 아이들, 무슨 일이든 이야기하면 “예스, 시스터!” 하는 사람들, 그 가벼움과 혼쾌함에 나도 같이 가벼워지고 함께 있으면 기쁘다.



염소분양식날 삼부지와 함께

이 곳에서의 삶은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 두세 벌 번갈아가며 입는 편안한 옷, 꾸미지 않는 얼굴, 필요한 만큼의 먹거리, 뜨거운 낮에 그저 스프라이트 한 모금이면 생기는 청량함. 작는데 기쁘고 작는데 같이 행복하다. 이렇게 이곳 인도에서의 내 삶은 필요 없는 것들이 버려지고 가벼워지고 있다.



## 만타부 학교 교실 2칸 증축 프로젝트

### - 필리핀JTS가 생각하는 마을 개발

만타부(Mantabo-o) 마을은 JTS 센터가 위치한 리보나(Libona) 군 실리폰(Sil-ipun) 면 중심가에서 북서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시티오(필리핀 최소 행정구역)'이다. 알라원에서 흘러내리는 부부나완(Bubunawan) 강가에 있는 이 마을은 실리폰 면과 까피한(Capihan) 면, 뿌띠안(Putian) 면 등 3개의 '바랑가이(한국의 면(面) 단위 행정구역)'의 경계에 맞닿아있다. 필리핀JTS에서 처음 이 마을을 지원할 때에만 해도 전기도 들지 않고 가끔 신인민 해방군(NPA)이 강을 따라 넘나드는 두 메산골이라 어느 바랑가이에서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2006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주민들이 의기투합하여 교실 2칸짜리 학교를 지은 이후, 이제는 거주민 100가구가 넘고, 커피와 아바카(abaca) 직물 등 상품작물을 카라바오(필리핀 물소)에 실어 밖에서 팔 수 있는 제법 잘 사는 마을이 되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박영일 활동가

필리핀JTS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이 마을에서 시범 마을 사업을 해왔다. 아직 이렇다 할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들과 협력하여 손 씻기와 이 닦기 등 위생교육을 하고,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학교 텃밭을 만들어 운영하는 일을 도왔다. 작년 7월에는 마닐라 정토회의 한 후원자의 제안으로 이 마을 주민 37가구에 태양광 전구를 보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135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교실 두 칸에 모두 수용할 수 없으니 새로운 교실을 더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를 낸 것은 다른 아닌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었다. JTS에서는 우선 주민들에게 대나무로 임시 교실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주민들에게 공사에 필요한 돈을 지원했다.



JTS가 지원한 돈을 살펴보는 주민들

필리핀JTS가 지난 12년간 민다나오 전역의 오지 마을에 학교를 지으며 가장 어렵게 느낀 점은 교육부의 관심과 지원을 어떻게 끌어내느냐는 것이다.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마을 주민들을 조직하고 자재를 대 어렵사리 학교를 완성하더라도, 교육부에서 교사 파견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문을 닫는 학교가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만타부 학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2013년까지 교육부에서 정규 교사를 파견해주지 않아 리보나 군청에서 임시로 파견한 대안 교육 교사 2명이 수업을 진행해오다가, 지난해 비로소 교육부에서 실리폰 초등학교의 분교로 공식 인가해줬다. 그래서 JTS는 이번엔 교실 증축을 논의하면서 부키드는 주(州) 교육청이 언제까지 교사를 파견할지를 약속받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교육청은 처음에는 '정규 교사 추가 파견계획이 없다'고 단호하게 나왔으나, 학교 선생님들과 지역 주민들,

나중에는 리보나 군수 칼링가산(Calingasan G.) 씨까지 끊임없이 교육청과 접촉하여 요구한 끝에, 오는 신학기부터 정규교사 3명을 임명할 것을 약속받았다.

지난 1월 어렵사리 양해각서(MOA)의 내용을 확정하고 학교 증축을 위한 목재 준비와 부지 정비에 들어갔으나, 이번에는 모래와 자갈에 대한 쌀 지급 문제를 두고 마을 주민들과 견해차가 벌어졌다. 원래 JTS에서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대기로 한 합의에 따라, 세미 콘크리트(semi-concrete) 구조의 기단부와 바닥 공정에 들어갈 모래와 자갈을 외부에서 구매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두메산골까지 많은 양의 모래와 자갈을 옮기는 일이 녹록하지 않고 마을 인근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주민들에게 현금 대신 쌀을 주고 구매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주민들은 시중 가격과 맞먹는 양인 모래 자갈 3 캔(약 20kg) 당 쌀 1kg을 요구했지만, JTS에서는 '당신 자녀들이 다닐 학교를 좀 더 튼튼하게 짓기 위한 것이니 4캔당 쌀 1kg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혹시나 무게가 틀릴까 옮긴 모래 자갈의 양을 이중 점검하는 주민들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을 최대한 절약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도 있겠거니와 무엇보다도 카라바오 등 생산 수단을 가진 일부 주민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옮기고 쌀을 독점하는 상황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3월 셋째 주에 첫 삽을 뜬 후 2개월이 지난 지금, 만타부 학교 증축 공사는 순항 중이다. 주민 조직 자원봉사자들의 출석률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감이 있지만, 공사의 총책임을 맡은 젊은 목수 롤리(Rolly L.) 씨 등 열심히 나무 기둥과 대들보를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절로 흡족해진다. 비 한 방울 올 기미가 없는 건기의

퇴약별 아래에서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바쁘게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개인 용돈으로 커피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

마을이 개발될수록 바깥 문물의 영향으로 점점 실리적이 되는 주민들을 보면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JTS가 이 땅에서 사업하면서 지켜나가고자 하는 원칙들을 충분히 살리는 것이 JTS와 마을 모두를 살리는 마을 개발의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퇴약별에서 대들보를 설치하는 주민들



군청 엔지니어 준타고 씨

### 만타부 마을에서는 학교를 이렇게 지어왔습니다



(2014년 12월)  
학교 건축을 위한 당사자 모임

만타부 마을에 학교를 짓기에 앞서, 만타부 마을 대표와 필리핀JTS, 리보나 군, 실리폰 면, 리보나 교육청 당사자들이 몇 차례 모임을 하고 양해각서의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2015년 1~2월)  
목재 준비와 부지 정비 작업

양해각서의 내용이 갈무리 될 때 즈음 마을에서 주민들이 기증한 나무를 잘라 목재로 가공했습니다. 본격적인 목조 작업 시기인 4월 중순까지 최소한 3개월은 목재를 건조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구별로 마을 공동 노동 조직을 편성하여 목재 운반과 부지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두메산골에서 물소를 이용하여 땅을 고르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2015년 3월 1주)  
공정 계획과 자재 배달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 회의

학교 공사에 앞서 현지인 스텝 미오 (Romeo S.) 씨와 마을 주민 회의에 참석하여 향후 공정 계획과 자재 배달 시기, 마을 어귀 강가에서 채집할 모래와 자갈에 대한 쌀 지급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모래와 자갈에 대한 쌀 지급 문제에 있어 JTS와 마을 주민 간 견해 차이가 벌어지기는 했으나, 주민들은 아이들이 다닐 튼튼한 학교를 짓기 위해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약속했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마을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2015년 3월 3주, 4월 4주, 5월 중)  
학교 건축에 필요한 자재 배송

주민들과 학교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세 차례에 걸쳐 운반하기로 하고, 3월 19일에 리보나 군청의 협조를 받아 민다나오 북부 대도시 카가얀 데 오로 (Cagayan De Oro)에서 시멘트와 철근 등 골조 자재를 운반해왔습니다. 자재를 덤프트럭으로 마을 입구까지 운반하면 주민들이 미리 나와 기다리다가 등에 짊어지거나 물소를 이용하여 공사 현장까지 옮겼습니다.

(2015년 3월 4주)  
발전기와 전기 대패 사용 교육

올해 만타부 학교 증축부터 달라진 점이 있다면, JTS가 전기가 없는 마을에 소형 발전기와 전기 대패를 대여한다는 것입니다. 전기 대패를 사용할 경우 손 대패를 사용하여 온종일 다듬을 분량의 목재를 불과 몇 십 분 만에 가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오 씨와 함께 마라뱃에서 사용하던 소형 발전기와 전기 대패, 휘발유 10ℓ를 가지고 마을에 들어가, 1박 2일 동안 주민들과 함께 먹고 자며 발전기와 전기 대패 사용법을 교육했습니다.



(3월 이후 매주 1~2회)  
리보나 군청 엔지니어들과 함께하는 정기 모니터링

필리핀JTS에서는 한 주에 최소 한두 번, 만타부 증축 공사 현장을 모니터링 합니다. 매주 공정 진행 상황과 자재 입·출고 현황을 파악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리보나 군청 엔지니어들과 소통하여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군청 엔지니어들도 신이 나는지 주민들과 허물 없이 어울려 작업합니다. 다음 달이면 완공될 학교의 모습이 어떨지 벌써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 신나게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

### - 마라뭇 교실 조기복구를 마무리 짓고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원석환 활동가

2013년 11월에 필리핀에 불어닥친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본 마라뭇 지역에서 교실 복구를 시작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태풍 직후부터 시작한 조기복구사업을 통해 무너진 교실 80곳을 복구한 이후, 2014년 말부터는 자갈밭과 습지로 변해버린 운동장과 무너진 학교 담장을 정비하고 교실 6칸을 신축했습니다.

JTS가 전적으로 지원했었던 조기복구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매일 선생님과 마을 주민들이 그룹을 나누어 3달간 자원봉사를 통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언덕을 깎아서 계단식으로 터를 만들고, 흙과 모래를 운반하여 습지에 잠겨버린 땅을 돌렸습니다.

말끔하게 정비를 마친 운동장에는 미끄럼틀과 그네 등,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이곳 학교에는 원래 놀이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놀이기구를 타 본 적이 없었던 아이들은 신이 나서 놀이기구 옆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JTS는 이것으로 마라뭇 교실 복구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곳 아이들이 재난의 기억에서 벗어나, 즐겁고 행복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의 논과 구분이 되지 않는 운동장



계단식으로 언덕을 깎고 있는 주민들



습지를 돌우고 언덕을 깎은 운동장



운동장과 담 정비를 마친 따갈락 초등학교



시소를 타는 아이들



인기 만점의 놀이기구들



매일 아이들을 위해 담장과 운동장 정비에 참가했던 뻬나미티난 초교 교장선생님



공사에 참가한 교사와 주민들

# 2015년 어린이날 거리모금

함께하고 글쓰는 편집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제3세계 어린이 지원을 위한 거리모금 행사가 서울 명동거리 일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JTS와 함께 방송, 연극, 문화, 예술인 등의 사회봉사 모임인 길벗이 매년 기획하고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여러 연예인들이 함께하여 거리모금에 참가했습니다.

개그맨이자 교수인 김병조와, 뮤지컬배우 김형주 부자가 행사의 진행을 맡았고, 팝클래식 싱어 진정훈, 가수 난아진, 임현정 등이 축하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배우 배종옥, 한지민, 윤소이, 차중호, 임세미, 진정훈, 서우진, 이재우, 한정현, 하정희, 걸그룹 헬로비너스, 모델 정범중, 성용록, 홍석민, 김재희, 최진영, 박수현, 이창형 등, 각계의 연예인들이 이 날의 모금에 함께하여 기부를 독려하는 캠페인에 함께했습니다.

이 날 모금 캠페인의 주제는 '줍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로, 한 시간 정도 명동 거리 전역에서 이어진 이 캠페인을 통해 약 1천 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국 각지의 96개 JTS지부에서 총 2,128명이 참가한 대대적인 거리모금을 진행하여 한 달 동안 약 5,5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성금은 가난과 자연재해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시아의 아이들에게 학교와 교육의 기회를 선물하는 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모금 활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 법륜 스님과 함께 한 두북 어르신 봄 나들이

함께하고 글쓰기 해운대 지부 - 김은주 활동가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서 단체촬영

2015년 4월 13일, 법륜 스님과 함께 울산 울주군의 두북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북 영주시 부석사에 사찰순례 겸 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일기예보에서 봄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해서 행사 준비를 담당하신 해운대 봉사자들은 걱정이 많았지만, 모든 걸 하늘에 맡기고 성심껏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역시나 전날 밤부터 주룩주룩 내리던 비가 행사 당일 새벽 두북에 집결했을 때까지도 찾아들 줄 모르고 계속 내려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참여가 저조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대부분 시간에 맞게 와 주셨고 '우리는 비를 예사로 맞는다' 하시며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농사 일로 애쓰며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는 가뭄에 내리는 봄 비가 오히려 기쁜 손님이었다는 게지요.

아침 7시 10분경, 준비된 물품을 싣고 어르신 129분과 봉사자 21명 등 152명이 탄 대형버스 네 대가 질서 있게 두북을 출발하였습니다. 남쪽에서 출발한 버스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차창을 때리던 빗발이 점점 가늘어지더니 부석사 주차장에 내릴 무렵에는 다행스럽게도 흐리고 쌀쌀할 뿐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대신에 남쪽에서는 이미 진 벚꽃과 목련, 진달래가 부석사를 향해 오르는 길목에서 한껏 아름다운 자태



부석사의 유래에 대해서 재미난 일화를 들려주시는 법륜스님



아픈 다리를 쉬며 맛난 점심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

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부석사에서는 법륜 스님이 안내를 맡아 절의 역사와 '부석사'라는 이름의 유래를 설명해주셨습니다. 부석사는 신라시대의 가장 유명한 스님 중 한 분인 의상 스님이 지은 절인데, 676년에 지었다고 하니 벌써 1,30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의상 스님이 중국유학을 다녀온 후 화엄종의 본찰로 삼아 지은 것이라 합니다. 어르신들은 아침 일찍 서둘러 나오느라, 또 가파른 부석사 경내를 오르느라 힘드셨을 텐데도 스님의 재미난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유서 깊고 아름다운 부석사 구경을 마치고 식당으로 내려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 노래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활짝 펴지며 모두 잠시 시름을 잊고 어깨춤을 들썩이며 신명나게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에, 봉사자들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인근에 있는 소수서원과 선비촌도 관람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설명에 열심히 귀 기울이셨습니다. 옛날에 살던 모습을 재현해놓은 선비촌에서는 법륜 스님과 어르신 모두가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난 시절들을 회고하며 공감을 나누시는 모습이 참으로 정겨웠습니다.



## 거제도 애광원 봄나들이를 다녀와서

장애인 보호시설인 거제도 애광원의 김임순 원장님과 JTS의 이사장 법륜 스님은 모두 한국의 막사이사이상 수상자입니다. 이 인연으로 2003년부터 매년 두 번씩, 평소에는 시설을 벗어나기 힘든 거주인들을 위한 나들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 나들이는 애광원 거주인 중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 이들과 함께 진주와 사천 일원을 다녀왔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마산 지부 - 최 영 활동가

5월 11일, JTS 마산, 내서, 함안, 거제 지부에서는 JTS 이사장인 법륜 스님과 함께 거제도 애광원의 거주인들과 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오전 9시 반경에 진주성 북문에 애광원 원생 30명을 태운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봉사자 한 명과 거주인 한 명씩 오늘 하루 함께 생활할 짝을 맺었습니다. 모두 처음 만나는 짝이지만 반갑게 인사합니다.

진주성을 한 바퀴 돌아본 뒤, 전망 좋은 잔디밭에서 미리 준비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프로그램은 절반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애광원 친구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노래실력을 자랑하고자 나서는 통에, 다들 흥에 멩달아 장단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석만 깔아주면 잘하고 못하고를 상관하지 않고 서로 나서는 바람에, 사회자가 연이어 “줄을 서시오~”를 외쳐야 했습니다. 참 맑고 순수하다는게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1952년부터 고아와 장



애인을 돌보고 있는 김임순 원장님은 더없이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을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한참 전부터 행사를 유심히 지켜보는 한 신사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어디서 온 단체며 어떤 취지의 행사인지를 물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너무나 열성적인 봉사자와 순수한 원생들의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합니다. 애광원과 JTS에 대해 설명하고 행사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더니, 공감하시며 꼭 후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활동이 주변 분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비친다니, 무척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즐거웠던 레크리에이션 덕분에 배도 출출해지자, 모두 사천으로 이동해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원생과 봉사자도 대부분 친해져 다정하게 식사를 챙겨주는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원생도 봉사자들이 정성을 다해, 모두 ‘한 그릇 똑딱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천의 항공우주 박물관을 관람했

습니다. 종이비행기 날리기로 박물관 관람을 마무리할 즈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정된 야외활동을 모두 마쳤으니,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모두의 지극한 바람에 불어오던 태풍도 많이 봐주는 듯 합니다.



이어서 오후의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진 후, 저녁식사를 위해 진주 남강변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식사 전에 오늘 봄나들이 행사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임순 원장님은 인사말에서 “애광원은 교사 1명이 원생 6명을 담당하는 구조여서, 평소 원생들을 먹고 씻기는 일만해도 일손이 딸려 이렇게 나들이하는 일은 엄두를 못 내는데, 매년 JTS에서 두 번씩이나 하루 종일 원생들의 손을 잡고 순수한 사랑으로 함께해주시니 무어라 감사의 표현을 하기에도 벅차다. 이렇게 나들이를 하고 나면 원생들이 며칠 동안 후유증을 겪을 정도로 원생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경험이자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며 거듭 자원봉사자들과 JTS, 법륜 스님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답사에서 “원생들의 건강 때문에 멀리 나들이하는 것을 어려워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새롭고 의미있는 곳으로 나들이하는 것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여 우리도 큰 힘을 얻게 되었다”며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나절의 짧은 추억에 불과하지만, 함께 두 손 꼭 잡고 걸었던 길과 나누었던 웃음들이 있기에, 아쉬운 마음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몇 번씩 애광원 나들이를 함께 했던 사람도 이 시간이면 항상 느끼는 그 마음을 담아, 다음 나들이를 기약하며 빙속에서 배웅했습니다.

# 거리에서 구걸하던 아저씨가 준 깨달음

## - 어린이날 거리 모금 활동 후기

함께하고 글쓰기 청년국 행정부 자원활동팀 - 이선숙 활동가



거리모금을 함께한 봉사자들  
(왼쪽부터 이선숙, 박세미, 박지윤, 강나을)

점심을 먹고 모금 장소인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오랜만의 야외활동이라 그런지 마음이 가볍고 좋았습니다. 어깨띠를 매고 모금함을 들고 모금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모금 구호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천 원이면 일주일간의 식량을 살 수 있습니다. 오천 원이면 저체중아의 한 달 치 분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외워지지 않아 더듬거리고, 입에도 좀처럼 익지 않았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는 심정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번을 다가갔지만, 성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직접 다가가지 말고 행인들이 자율적으로 기부하도록 하자는 세미 씨의 의견에 따라 한 자리에 서서 모금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이 없는 것에 더 민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부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 기부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마음, 냉담한 사람들을 타타하는 마음 등, 여러 가지 미세한 마음들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마음을 담아 모금 구호를 외쳤습니다. 민망하리만치 반응 없는 시간이 흘렀지만, 개의치 않고 정성을 다해 모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오셨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부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내어 기부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 더 힘을 내어 “감사합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라고 연발했습니다.

그렇게 모금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차에,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서 박카스 상자를 들고 구걸하던 아저씨가 손짓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더러 가라고 하는 게 아닐까? 어떡하지? 그냥 다른 데 갈까?” 함께 있던 세미 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세미 씨의 말에 제 마음도 불안했고, 한편으로는 구걸하는 분께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다른 데 가라고 하면 그렇게 하자. 일단 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머뭇거리며 그 아저씨께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박카스 상자를 거꾸로 들어 우리 모금함에 동전을 모두 쏟아 붓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어쩔 줄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 동전은 아저씨가 온종일 구걸하며 얻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라고 손짓을 하셔서 일단 등을 돌리고 오는데, 예상치 못한 이 상황이 너무 놀라웠고, 그 아저씨의 마음에도 감동하여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동안 떨림이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천 원과 아저씨의 천 원의 가치는 분명 다를 것인데도, 아저씨는 자신의 모든 돈을 기부하셨습니다.

‘하루 꼬박 모은 돈을 우리에게 다 주시면, 오늘 그 아저씨 저녁은 어떻게 하시지? 가진 것 없다고 생각한 아저씨도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주려는 마음을 내는구나. 배고픈 사람이 더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구나.’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상처 받았던 마음을 붙들고, 상처받은 나의 마음이 마치 나의 전부인 것처럼 상념에 빠져 울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마음을 크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내가 상처 받고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더 괴롭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그들을 더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으리라.’ 자꾸만 부정적으로 끌려가던 과거를 긍정적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JTS 거리 모금 행사를 위해 힘써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그 아저씨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인간나무에 아이들의 꿈을 실어

### - 어린이날 거리모금 후기

5월 5일 오전 9시, 포항 환호공원에 모금을 위한 요원들이 뿔었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포항 지부 - 하상의 활동가

모금 준비를 하는 활동가들은 다른 때보다 설렘이었습니다. 현수막을 걸고, 탁자를 펴고, 배너를 설치하고, 오늘 이벤트에 사용할 갖가지 물건들을 챙기느라 부지런히 움직이면서도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10시.  
“천원이면 굶주리는 두 명의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엄마가 모금통을 확인하고 곧 모금에 동참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금부스로 오자 차츰 많은 이들이 모금에 참여합니다.

금방 톨은 나뭇잎처럼 어린 손으로 모금함에 돈을 넣는 아기, “이거 뭐예요?”라며 호기심에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어린이, 아기를 안고 참여하는 아빠. 적어도 이 순간만은 모두 우리의 아이라는 차별 없는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니다.

물론 모금보다 우리들이 준비한 이벤트에 먼저 관심을 보이고 다가 온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저씨 뭐예요?”  
한 아이가 뺨이 쳐다보며 물어봅니다.

“나는 나무야”  
특별히 오늘을 위해서 인간나무를 만들었는데, 나무에는 아이들이 소망하는 것을 적어서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와~ 나무다!” 공원에 놀러 온 아이들의 반응에 나무 역할을 한 이도원님의 표정이 더 밝아집니다. 태어나서 모금도 처음이고 이런 나무 역할도 처음이라며 씩

스러워하던 모습은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에 더 소년 같은 웃음으로 바뀝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터민 아이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런 모금활동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누구에 의지해서가 아닌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새터민 친구들은 씩씩하게 모금 활동도 하고 나무에 소원을 써서 붙이기도 하고 또 풍선으로 여러 모양도 만들면서 신나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봉사자들이 데려 온 자녀들과도 어느새 스스럼없이 어울렸지요. 태양 아래 아이들은 더 이상 차별 없는, 똑같은 푸르디 푸른 어린 나무일 뿐이었습니다.





## 색소폰 연주와 함께한 JTS 거리모금

거리모금에 찬조 출연한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 덕분에 분위기가 좋았던 안양 거리모금 소식을 전 해드립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안양 지부 - 서정연 활동가



모금함을 들고 웃고 있는 이종명 활동가

안양에서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범계역에서 거리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에도 역시 거리모금이 있었는데, 이날은 다른 날보다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종명 활동가가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모금 장소에서 연주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모금 시작 몇 시간 전부터 무대를 꾸미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설치하며, 연주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거리모금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참석한 이종명 활동가 덕분에 오늘 거리모금은 좀 더 특별했습니다. 잔잔한 색소폰 연주 소리에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려다 한 번 더 봐주고, 모금에 참여도 해 주었습니다. 공연과 모금을 함께하니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거리모금을 마치고 난 활동가들의 소감을 들어보니 음악과 함께해서 참 좋았다는 분, 놀러 가자는 가족의 권유를 뿌리치고 나왔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분, 아빠와 함께 거리모금을 했는데 아빠가 자랑스럽다는 아이, 인도에 갔을 때가 생각나서 울컥한 마음이 올라왔다는 분 등, 화려한 봄꽃 구경을 뒤로 하고 거리모금을 마친 활동가들의 얼굴이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게 피어난 것 같았습니다.



## 자운JTS, 평화리더십 동아리와 함께한 거리모금

함께하고 글쓴이 자운고등학교 - 박용숙 활동가

서울 자운고등학교에는 자율 동아리인 '자운JTS'와 '평화 리더십'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두 동아리 가입조건은 세계시민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1년에 네 번 이상 거리모금 캠페인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시민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거치며 학생들은 주변의 작은 세계에서 지구 차원으로 시야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거리모금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입니다.

### 1학년 이희연

어제 처음해본 모금활동으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동아리 언니들과 인사동 모금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안녕하세요. 국제구호단체 한국JTS입니다"라는 구호를 붙여 모금을 했다. 국제구호단체 JTS를 홍보하는 홍보대사의 역할이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모금에 참여하던 안하

든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를 말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함께 미소와 인사를 건네 주신다. 할머니들과 어머니들,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모금해 주셨는데 “수고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모금에 응해주신 분께, 우리는 “잘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보답했다. 함께 한 활동가님께서 들려주신 모금후기가 마음에 남는다. 오토바이 배달원 아저씨의 50,000원짜리 기부가 몇 주 간 계속되었다는 이야기, 지저분한 누더기와 더러운 물골이지만 1,000원짜리 한 장을 모금함에 넣으며 눈맞춤으로 인사를 건넸다는 노숙자의 이야기는 나의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분들도 기부의 마음을 내주시는걸 보고 기부란 재물이 부자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슬그머니 나도 내 지갑 속에 있던 천원을 꺼내 들고 있는 모금함에 넣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처음 뿌듯하고 흐뭇한 마음은 오래 가지 못했다. 점점 자세도 삐딱해지고 허리와 다리가 아팠었다. 그때 다른 기부단체분들이 우리 앞을 지나가며 고생이 많다고 웃으며 인사해 주시고, 아기 엄마들이 자녀의 손을 잡고 직접 모금함에 돈을 넣도록 부추겨줄 때 모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오늘의 봉사활동 명

심문이었다던 ‘내 인생의 희망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는 말이 너무 나를 보람차게 하고 마음이 가벼워진 듯한 기분이었다. 봉사활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 전철역에서 다른 지역 JTS 모금단체를 만났다. 망설임 없이 지갑에서 천원을 꺼내 기부했다. 내가 낸 천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될 것인지 나는 잘~ 안다.



### 1학년 이희연

지금까지 다녀왔던 봉사활동들은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오늘 참여한 활동은 신기한 사전교육을 하였다. 방석에 앉아 마음을 깨끗이 비우라 하면서 보여준 동영상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모금을 하기 시작하면 누가 나만 보는 것 같고,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쩌나 걱정하고 나중에는 모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까짓 천 원 하나 못 주냐’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의 일이고 그 사람이 택한 행동이다. 절대로 그 행동이 ‘나쁘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조금은 신기하고 당황스러웠던 교육 후, 노래도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모금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고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것 같아 괜히 텅 빈 모금함도 보고 고개를 숙였다. 그럴 때마다 스님 말씀도 생각하고 선생님들께서도 도와주셨

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언니들과 함께 서로 의지하고 호흡을 맞췄다. 모금함에 돈을 넣어주신 그 마음의 소중함과 특별함을 알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다리도 아프고, 내 또래 애들이 지나갈 때마다 ‘내가 뭐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같이하는 언니들, 햇빛 속에서도 힘을 내시는 선생님들을 보며 나 또한 힘을 낼 수 있었다. 우리반 친구가 기부하고간 1,000원짜리, 누군가 넣어준 5,000원짜리, 선생님이 넣어주신 만원짜리... 모금액을 보면서 뿌듯함이 생겨났다. 한번도 나를 도와달라는 기부를 부탁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있는 내가 정말 이상하기도 했지만 ‘굶주리는 아이들이 꼭 밥을 챙겨먹을수 있도록 잘 전달되어졌으면’이라는 생각을 했다.



### 2학년 이윤주

거리 모금도 처음인데 JTS 활동가님이 마이크까지 건네주며 모금 참여를 독려하는 멘트를 말하라는 역할까지 맡게 되어 정말 긴장되었다. 쑥스럽고 떨리던 마음은 모금활동이 시작되며 네팔 지진과 관련된 피해와 이에 따른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간절함과 힘찬 구호의 목소리로 나왔다. 노래도 부르며 친구들과 다같이 함께하니 떨리지도 않고 오히려 힘이 되어 좋았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모금 활동을 했다(마이크를 들고 외치는 데에 소질이 좀 있는 것 같다) 모금에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눈물 나게 고맷웠다. 나도 그동안 대부분은 귀찮아서 그냥 지나친적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내가 겪어보니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가 모은 돈과 따뜻한 마음이 네팔과 인도, 라오스 등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친구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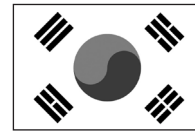




# 해외, 국내 JTS NEWS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Korea 국내소식



### 1. 신민아씨 네팔 긴급구호 후원

5월 7일, 배우 신민아 씨가 지진으로 큰 피해를 당한 네팔을 돕기 위해 JTS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인도 동게스와리 어린이들을 위한 해피에너지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동게스와리 불가촉천민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던 신민아 씨는, 국내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돕기 위한 활동에도 오랜 기간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민아 씨의 기부에 감사드리며, 기부금은 우기가 끝난 후 네팔 지역의 학교와 병원 복구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2. JTS 후원의 밤

지난 4월 27일과 29일, 부산과 안양에서 '필리핀 민다나오 딸란딕 부족의 춤과 문화'라는 주제로 JTS 후원의 밤이 진행되었습니다. 필리핀 JTS가 전통문화보존을 위해 지원했던 딸란딕 부족 사람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그들의 전통문화를 후원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족의 정신적 지도자인 미끼다이 추장과 젊은 연주자들, 부녀자와 아이를 포함하여 모두 20명이 왔고, 직접 만든 전통옷을 입고 직접 제작한 전통악기를 연주하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춤을 선보였습니다.



## North Korea 북한



### 1. 버드나무 묘목 16만 그루 지원

지난 3월과 4월, 중국 JTS(정토복지협회)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버드나무 묘목 16만 그루를 지원했습니다. 3월에 지원한 버드나무 11만 그루는 회령시와 부령군, 연서군, 어랑군에 나눠서 시내와 주변 산들에, 4월에 지원한 5만 그루는 온성군에 보내 두만강 주변과 인근 야산에 심도록 했습니다. 홍수로 인한 산사태와 농토 유실을 막기에는 지원한 묘목 수가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2. 옥수수 국수 25톤 지원

중국 JTS(정토복지협회)는 지난 4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옥수수 국수 25톤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회령 양로원, 길주 초등학교, 청진 애육원, 온성 농아학원에 각각 600kg씩 보내주었습니다. 온성군에는 10톤을 보내 나무 심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20kg씩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했습니다. 12톤은 청진 시 인민반(주민 조직 단위)에 100kg씩 배분하였습니다.

### 3. 중국 취약계층 지원

중국 JTS(정토복지협회)는 지난 3월 중국 룡정시와 도문, 훈춘지역에 옥수수 국수 3.5톤을 지원했습니다. 룡정시는 생활이 어려운 결핵 환자와 저소득 환경미화 노동자들, 양로원, 장애인 보호시설 등에 지원했고, 도문과 훈춘지역은 양로원 7곳에 국수를 지원했습니다.



### 1. 장기결석 학생 가정방문

교사 주례회의를 통해 장기결석 학생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장 결석생이 많은 '자그디스프루' 마을에 교장, 교감, 한국인 활동가가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노는 게 좋아서 안 나온 아이, 일하러 간 아이, 아파서 오랫동안 드러누운 아이, 팔이 부러진 아이, 학부모와 아이를 만나 이야기 나누고, 꼭 학교에 나오기로 교장 선생님과 약속했습니다. 방문 다음 날, 손가락 걸고 약속했던 학생 11명이 학교에 나왔습니다. 동게스와리의 모든 아이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작은 소리에도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 2. 전교생 비타민 지급

인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열이 나서 밥을 못 먹겠다고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종례 후 전교생에게 비타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학년에게는 시럽 형태로, 3~7학년에게는 알약으로 지급합니다. 선생님들이 한 명씩 입에 비타민을 넣어주는데, 아이들의 눈빛이 참 맑고 귀엽습니다. 비타민을 줄 때가 되면 "시스터, 우리 줄부터 주세요" 하고 눈을 찡긋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건강히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 3. 오늘은 위생교육 하는 날

지바카 병원에서는 1년에 두 번 수자타아카데미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위생교육을 합니다. 동게스와리의 위생 수준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편으로, 집안에서 가축과 함께 살거나, 강가에 똥을 누기도 합니다. 지바카 병원에서 20년을 근무한 의사 까미스와르 선생님이 위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교육을 통해 위생상태가 조금만 호전되어도 아이들이 질병으로부터 좀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 4. 지붕 수리용 벃단지원

이제 인도에는 우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우기가 오기 전, 동게스와리 주민들은 지붕을 수리합니다. 초가지붕의 낮은 부분을 새 벃짐으로 바꿔줘야 비가 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지은 벽돌집이 많아졌지만, 아직도 마을에는 초가지붕이 많습니다. 올해도 인도JTS에서는 마을마다 방문하여 극빈자 가정을 조사해, 15개 마을마다 4가구씩, 총 60가구에 벃단을 지원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선 별 쓸모가 없는 벃단이지만, 이곳에선 여전히 훌륭한 건축 자재입니다.



### 5. 재봉반 입학식

올해도 재봉반이 개설됐습니다. 인도JTS에서는 동게스와리의 부녀자를 대상으로 매해 재봉반을 열어 재봉기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선발해서 입학식도 하고 80일간의 수업을 마치면 졸업식까지 합니다. 보통은 주부들이 많이 참가하지만, 올해는 20살이 안 된 친구들이 열두 명정도 모였습니다. 수업 첫날 재봉틀을 신기해하면서 발로 밟아가며 재봉을 돌려보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 6. 새해맞이 쌀 지원

지난 3월, 인도의 새해(홀리)를 맞이하여 JTS이사장 법륜 스님과 함께 15개 마을 1,400여 가구 전체를 집집이 방문하여 쌀을 전달했습니다. 첫날 두르가푸르 마을부터 넷째날 가월비까지 쌀을 지원하면서 가족구성, 집에서 키우는 동물 수, 수입원 등등을 세세하게 확인했습니다.



# Philippine 필리핀



### 1. 알라원 마을 분교 수업 재개를 위한 준비

알라원 마을 주민 모두가 고생해서 학교를 지었지만, 현재는 선생님들이 오지에서 오래 근무하지 못해서 학교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JTS는 알라원 출신으로 유일하게 고등교육을 받은 아르빌 씨를 대체교사로 모시고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리가 끝나면 바로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2. 오버루킹 초등학교의 두 번째 졸업식

3월 27일, 오버루킹에 지은 학교가 'New Nebo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정식 인가된 이후 두 번째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남학생 12명과 여학생 21명, 총 33명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모두 몇 시간씩 걸어 다니지 않아도 졸업할 수 있게 되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이 학교의 재학생이 현재 총 167명으로, 마을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3. 스페드(SPED) 학교 보수공사 시작

지난 2004년 완공한 장애아들을 위한 학교 'SPED'의 교실 및 기숙사 건물이 낡아서, 2015년 6월 완공 목표로 보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노후화된 천장과 지붕, 고장 난 수도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시각 장애 학생을 위해 바닥을 고무 타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잦은 도둑 침입으로 파손된 문과 창문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 4. 기숙사 건축 소식

4월에서 5월까지 필리핀 JTS 기숙사 건축의 마무리 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5월 중순부터는 기숙사에 가구를 들여놓을 예정이고, 6월 입주를 목표로 공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신규 파견 활동가)

**인도** 장도연, 뿌리양카, 박종화, 권도영, 신예슬, 박영민, 강명희, 김미정, 김민경, 심애남, 정유진

**필리핀** 안병주, 김희자, 박영일, 원석환, 이진욱, 송우진, 홍민지, 박시현, 오정심

## 후원인의 소리



남편의 생일을 기념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 김택영 -

좋은일에 부탁드립니다^^ 아기백일을 의미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 김민서 -

임상재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 임명희 -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 동작고2학년3반 -

한 생명이라도 더 구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수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 장석우 -

더 많은 이재민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피해입으신 분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길 기원합니다.  
- 김현정 -

가족생일마다 조금씩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작은보탬이라 부끄럽습니다.  
- 문서현 -

우리 색시 생일이예요 ^^ 건강하고 행복하게 백년해로하며 살게요~  
- 이동원 -

죽사신도님들의 입춘 삼채풀이 동전입니다.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죽사신도회 -

그들이 빨리 고통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들을 위해 수고 하시는 많은 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유경희 -

동생 생일 기념으로 보시합니다. 성불하세요. \_(\_)\_  
- 민지선 -

제주도 양진사(절)에서 조금씩 모아서 보내드립니다.  
- 서연주 -

어제 손자 강근일이 태어났습니다. 손자의 태어남을 축하하기 위해 인도 아이들을 조금이나마 돕고 싶습니다^^\*  
- 이주현 -

지한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세계 모든아이들이 행복하길^^  
- 황은숙 -

북한어린이들 돕고 남북한 통일을 위한 일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새미 -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어서 빨리 안정을 되찾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 서울대새로운강상관물성그룹 -

우리 딸은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경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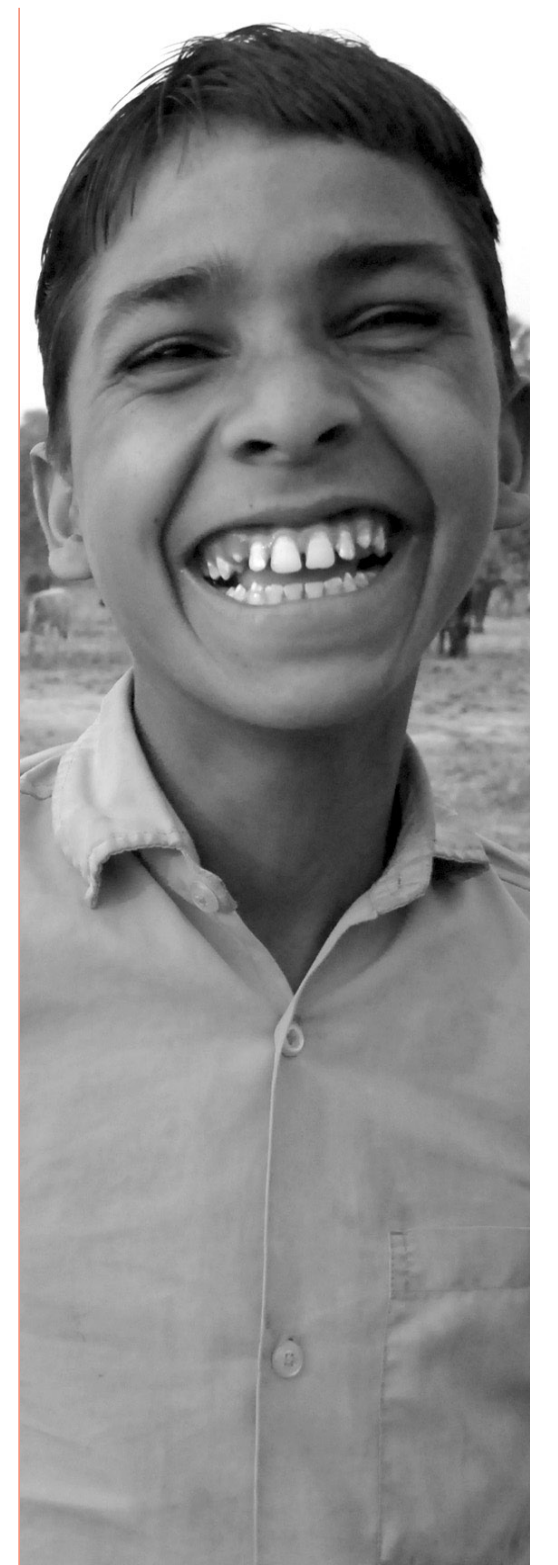
저의 생일케익을 인도 어린이들에게~~~  
- 김성수 -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잘 사용해주세요.  
- 금양중1학년5반축구우승 -





김유진	10,000	노선영	10,000	반석진	50,000	삼백	100,000	유미숙	13,000	이옥정8351	100,000	장재호	100,000	조사회	30,000	하상욱	30,000
김윤경	50,000	노윤희	100,000	방준석	50,000	삼백	100,000	유소영	10,000	이운강	300,000	장정숙	100,000	조수경	50,000	하은이	160,000
김윤홍	160,000	노재국	3,000,000	배성수	200,000	삼백	30,000	유승자	50,000	이원형	10,000	장춘희	50,000	조우정	50,000	하정희	100,000
김은경	50,000	노필선	50,000	배승훈	30,000	삼상숙	50,000	유영만	106,000	이유나	30,000	전선심	50,000	조윤정	29,000	한규희	100,000
김은기	30,000	대원사	1,000,000	배영란	50,000	삼연주	50,000	유은희 대전	1,000,000	이유호	50,000	전수명	75,000	조은경	100,000	한동규	10,000
김은정	30,000	대전꽃피는학교	72,000	배우환	100,000	씨엘에프르시스		유지선	50,000	이은경	100,000	전연희	29,390	조인란	500,000	한미경	50,000
김은정	20,000	류경열	50,000	배정은	589,000		100,000	유진희	50,000	이은식	100,000	전영선	10,000	조일석	60,000	한보란	100,000
김은정	160,000	류진	50,000	백서이	50,000	안경옥	300,000	유희정	50,000	이은주	30,000	전유진	50,000	조정순	50,000	한세진	100,000
김은희	200,000	무여스님	300,000	백수빈	100,000	안선6833	39,500	윤다인	10,000	이안수	50,000	전재영	500,000	조정신	20,000	한양순	100,000
김은희	1,000,000	문경자	70,000	백출19	10,500	안성숙	100,000	윤명선	30,000	이정현	20,000	전정아	100,000	조진국	200,000	한양희	100,000
김이영	100,000	문정신	50,000	복주희	30,000	안영민	100,000	윤세연	10,000	이재훈	100,000	전지현	1,000,000	조해숙	20,000	한지원	100,000
김재웅	100,000	문진영	100,000	봉선사청주	300,000	안영희(크린토피아)		윤시호	10,000	이정선	20,000	전해정	200,000	조한빈	100,000	한현옥	300,000
김정미	50,000	문철	40,000	서순철	50,000		50,000	윤영달	40,000	이정선8905	50,000	전희제	100,000	조현수	300,000	한혜선청주	46,010
김정미	50,000	문태훈	100,000	서강숙	50,000	안저애	50,000	윤재혁	10,000	이장택	2,000,000	전희진	100,000	조현우	50,000	한희수	1,000,000
김정미	200,000	문해신	2,000,000	서울대새로운		양병호	100,000	윤정아	400,000	이종미	10,000	정가은	30,000	조형준	100,000	함미정	30,000
김정선장기광주	20,000	문화수	50,000	강성관물성그룹		양상은	30,760	윤종욱	100,000	이주은	100,000	정경순	30,000	주수영	1,000,000	햇복차	56,280
김종숙	100,000	민복레	200,000		406,000	양운정	500,000	윤지혁	50,000	이진승	50,000	정교필	100,000	중국에서	30,000	허영자	50,000
김종욱	200,000	박경미3919	300,000	서혜라	300,000	양평이동오	100,000	윤태욱	50,000	이진자	100,000	정대진	70,000	중흥64파워	63,470	홍다연	50,000
김정원	1,000,000	박경자	100,000	서효재	260,000	양혁	100,000	음승환	100,000	이진준	10,000	정두영	10,000	지승현	50,000	홍순형 재천	200,000
김종태	30,000	박금숙	700,000	성연수	100,000	여정현	50,000	이가영	30,000	이철주	30,000	정미진	10,000	차진희	100,000	홍진숙	10,000
김종택	50,000	박금희	200,000	성영선	50,000	엄인용	150,000	이경양부평	50,000	이하영	500,000	정백기	100,000	채미화	1,000,000	홍진아	50,000
김지연	500,000	박별님	150,000	성유경	290,000	여수연	50,000	이경희	500,000	이학대	150,000	정보성	100,000	천도교한울연대		홍창선	300,000
김지영	300,000	박병희 대전	500,000	성지연	100,000	여승진	30,000	이광호	100,000	이해경	50,000	정수진	100,000	1,735,000		홍한기	100,000
김청수	200,000	박봉진	100,000	소민경	100,000	여승훈	50,000	이규상	10,000	이향애	30,000	정숙련	30,000	천향숙	100,000	홍현표김영남	10,000
김천구	30,000	박상순	50,000	소재섭	50,000	염성관	50,000	이길구	10,000	이향미	1,854,639	정순자	1,000,000	최가람	300,000	황미경	100,000
김태현	110,000	박선미	200,000	소진호	30,000	염정혜	50,000	이남숙	50,000	이현주	100,000	정스런	30,000	최경자	50,000	황미순	20,000
김태형	500,000	박수정	20,000	손경락	100,000	오미숙	50,000	이다근	30,000	이현형	100,000	정신아	30,000	최금자	300,000	황석규	500,000
김태호	50,000	박수현	50,000	송영주	50,000	오미옥	100,000	이대건	50,000	이현희	50,000	정영준	5,000	최만식	500,000	황시유	50,000
김현문	100,000	박승자	300,000	송우형	50,000	오미현	200,000	이동현	100,000	이호식	10,000	정유진	100,000	최모범	50,000	황인혜	100,000
김현정	5,000	박영숙	10,000	송점자	50,000	오승용	50,000	이리과	50,000	이화정	400,000	정은영	50,000	최미희	100,000		
김현정	60,000	박완림	60,000	송지선	20,000	오은실	100,000	이명자	50,000	일개기도비	1,395,000	정인자	100,000	최우규	50,000		
김현준	10,000	박유경	50,000	송지은	100,000	오진미	50,000	이명희	20,000	임동욱(세움전산)		정준채	30,000	최유진	100,000		
김형신	100,000	박은영	30,000	송태호	30,000	오진수	50,000	이미경	100,000	50,000		정태걸	180,000	최윤정	30,000		
김형진	50,000	박정숙	200,000	신도겸	50,000	오혜린	20,000	이민재	100,000	임명희	10,000	정한들	10,000	최윤정	10,000		
김혜경	30,000	박정현	100,000	신동현	1,000,000	오홍란	150,000	이범인 광택	100,000	임상열	30,000	정호진	30,000	최은서	50,000		
김혜경	10,000	박정호	50,000	신문경	50,000	우성배	50,000	이상숙	50,000	임선영	50,000	정훈석	50,000	최은영	10,000		
김혜정	100,000	박주선	50,000	신백주	100,000	윤진전열송균선		이선민	50,000	임수찬	10,000	제주강소연	20,000	최정원	50,000		
김혜진	500,000	박준수	50,000	신세라	5,000,000		100,000	이소영	30,000	임수현	1,000,000	조경태	16,730	최정희	50,000		
김희정	50,000	박지윤	20,000	신숙자	100,000	원종석	500,000	이승연	50,000	임재찬	10,000	조경화	100,000	최지예	30,000		
김후진	20,000	박창조	50,000	신순옥	50,000	웹브랜드	50,000	이승용	200,000	임진세	50,000	조계환	50,000	최해련	100,000		
김희숙	100,000	박해정대구	300,000	신용수	100,000	위가정	10,000	이승화	100,000	임희자	50,000	조도성	500,000	최현숙	1,000,000		
김희연	50,000	박효순	30,000	신옥범	100,000	유강열	20,000	이시창	100,000	장계초	190,000	조문숙	300,000	최현우	50,000		
김희정	30,000	박희라	100,000	신재경	50,000	유경희	30,000	이성교	1,000,000	장명진	200,000	조마숙	100,000	최호규	50,000		
나경주	50,000	박희섭	100,000	신준섭	200,000	유경희	50,000	이영	50,000	장석우	1,000,000	조민경	200,000	추성철	50,000		
나경진	1,000,000	박희숙	300,000	신환삼	100,000	유광중	50,000	이영주	10,000	장용일	50,000	조민영	30,000	추희명	200,000		
네랄	50,000	박희정	100,000	심민정	30,000	유미선	50,000	이오숙	300,000	장용	500,000	조병용	100,000	충주음성	58,220		



# 해외JTS 후원금 (2015. 2. 01. ~ 2015. 5. 31.)

<b>미 국 J T S</b> <b>2015년 2월</b>	이종순/한성후 \$50.00 이종순/한성후\$100.00 이지형 \$50.00 이진아 \$15.00 임국희 \$300.00 임인정 \$100.00 정수길/홍희선 \$50.00 정주영 \$10.00 정현준 \$20.00 최경숙 \$50.00 최만성 \$20.00 최만선 \$100.00 최창렬 \$100.00 하원백&하정숙 도성희 \$10,000.00 류청민 \$35.00 무주상 \$50.00 무주상 \$5.00 무주상 \$100.00 박승용 \$30.00 박승용 \$25.00 배엽 \$100.00 배영 \$100.00 백인숙 \$50.00 생낙준 \$400.00 산석중 \$10.00 산정애 \$100.00 안형준 \$10.00 양만호 \$100.00 원용진 \$100.00 유승묵 \$20.00 이규범 \$100.00 이동근 \$189.00 이동영 \$400.00 이우룡/이노숙 \$50.00 이일훈 \$480.00 이종순/한성후\$100.00 이종순/한성후 \$50.00	SOON JIN SCHEFFEL \$30.00 Susie Hwang Tyler Devlin \$100.00 Wilton Pharmacy YOOKYUNG NOH 김미경 \$150.00 김세희 \$50.00 무주상 \$50.00 무주상 \$5.00 무주상 \$40.00 박승용 \$30.00 박현수 \$120.00 유승묵 \$20.00 이규범 \$100.00 이규범 \$100.00 이노숙 \$50.00 이동근 \$117.00 이동영 \$400.00 정복교 \$100.00 최수영 \$60.00 한정희 \$300.00 HP COMPANY JUNG IE JUN \$30.00 JUHI LEE \$100.00 KYING J KIM \$5.00 KYOUNGMIN KIM Olivia Lee \$200.00 Piper Won \$100.00 REBECCA \$10.00	MICROSOFT \$860.00 SOONJIN &FREDERICK C SCHEFFEL \$50.00 THE MACCARON FAMILY FUND YOOKYUNG NOH \$10,000.00 <b>미 국 J T S</b> <b>2015년 3월</b> 노유경 \$100.00 무주상 \$100.00 유승묵 \$20.00 이동근 \$102.00 이동영 \$400.00 임선희 \$50.00 최경숙 \$50.00 최영태/김성순 \$100.00 Hui Young Ratliff \$30.00 Hyo S Jung \$100.00 Juhi Lee \$100.00 Kyung Kim \$10.00 Michelle Kim \$53.87 No Suk Yi \$50.00 Seungyoung Park \$30.00 Soogil Jung \$100.00 <b>미 국 J T S</b> <b>2015년 5월</b> 김미경 \$50.00 김선희 \$100.00 김세희 \$50.00 김윤진 \$70.00	김윤진 \$50.00 김재평 \$23.75 김진호/김명 \$400.00 김학노/김순미 \$50.00 김학노/김순미 \$50.00 도성희 \$10,000.00 무주상 \$5.00 무주상 \$50.00 박경배 \$50.00 박승용 \$30.00 박승용 \$30.00 박현수 \$60.00 밴쿠버 법당 \$193.00 밴쿠버 법당(이신우) \$155.00 송인선 \$200.00 심주영 \$25.00 이규범 \$100.00 이노숙 \$50.00 이노숙/이우봉 \$50.00 이동근 \$210.00 이연순 \$200.00 이주희 \$100.00 이지수 \$80.00 임선희 \$50.00 정훈자 \$100.00 정훈자 \$100.00 정호선 \$100.00 정호선 \$100.00 최경숙 \$62.00 최명숙 \$1,000.00 최영태/김성순\$100.00 하주홍&한혜숙 \$80.00 한정희 \$200.00 황경옥 \$1,000.00 bank adjustment \$100.00 HYEOK JIN LEE 김윤진 \$200.00	JEN JEN BEAUTY LLC \$200.00 JEN JEN BEAUTY LLC \$1,700.00 JONGSIK M. AHN \$100.00 JUN SUNG HWANG/ YOUNG HEE AN \$100.00 JUNG IE JUN \$30.00 JUNG IE JUN \$30.00 KYUNG J KIM \$5.00 LAUREN CARRE \$100.00 MICHAEL W YANG \$31.00 SOONJIN & FREDERICK C SCHEFFEL \$50.00
-------------------------------------	--	---	--	---	--

# 나눔저금통 현황 (2014. 2. 01. ~ 2015. 4. 31.)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시신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임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b>거제</b> 거제법당 64,690 거제법당 216,900	이경미 22,760	이재상 13,140 이지현 35,200 정미자2개 28,200 정영희 15,540 정종옥 25,800 정현숙 27,350 조정숙 17,180
<b>경기광주</b> 경기광주법당 26,140 경기광주법당 31,050 경기광주 법당 98,660	<b>남양주</b> 김민재 10,200	<b>덕산</b> 덕산법당 200,990
<b>경산</b> 박임숙 20,700 장선옥 40,400 최창주24,010	<b>남원</b> 남원법당 24,360	<b>동래</b> 김주연40,150 통래법당 350,770 류숙희 22,290 무명 35,660 무명 89,330 손영숙 24,170 안정현 18,190 이대선29,690 이항수 21,640 정미애 30,910 장순영 33,090
<b>경주</b> 경주정토마을 22,030 권인숙 34,060 무명 24,230 서인탁 21,700 손채익 20,880 손채익 25,700 송민정 15,220 이은서29,710 최영애 30,700 최윤순 26,920 황분옥 24,670	<b>내서</b> 내서법당 142,100	<b>마산</b> 공지영 15,880 김정래 48,690 무명 12,320 무명 7,000 무명 28,720 박세영 54,120 서동찬 32,400 손명자 39,930 신지아 39,000 우순연 76,200 이선 열 20,510 이영주 22,910 정성희 10,370 정현주 27,000 조승현 20,160 천영희 26,660
<b>광명</b> 김희숙 21,760 무명 27,660	<b>노원</b> 노원법당 147,710 이상순 40,070	<b>목포</b> 목포법당 109,130
<b>광주</b> 김미숙24,770 무명 30,830 무명 15,940 무명 18,430 박명란 42,160 오민정 57,380 이경숙 22,120 이지향 29,300 정은 11,740 정한채 40,130 JTS 37,180	<b>대구</b> 김옥자3개 46,050 김종현 13,590 마트프라임 27,130 무명 35,630 무명23,610 무명 32,370 무명 15,660 무명 9,830 무명3,480 무명 19,830 박옥경 13,010 박진옥 31,860 윤진옥 115,880 이상원 15,960 이창 수 17,860 최정은 24,540	<b>문경</b> 고재숙33,380 안복수 23,000 안복수 14,790 안복수 22,530 최우근 30,840
<b>구미</b> 김명숙 24,060 장혜진 30,860	<b>대연</b> 대연법당 111,410 대연법당 208,010	<b>방어</b> 권연준31,950 김자석 38,860 이현자 34,630 임승표 64,370
<b>기흥</b> 기흥법당 54,000	<b>대전</b> 권용순2개 46,610 김경아 7,790 김민중 28,590 김선옥 41,420 김소희 26,520 김영범2개 44,730 김옥 연2개 79,550 김종현 112,730 김창자 19,250 김태 권 30,570 김현정 17,190 꽃피는학교 64,810 노주 현 13,310 동촌한의원 37,000 동촌한의원 56,720 무명 32,750 무명2개 40,120 문윤순2개 34,620 박윤식 34,280 박현주 31,470 서현옥 12,730 손경자 23,700 손은미 22,330 심명만 16,030 안유 옥 22,500 안효주 22,050 양국숙 48,420 열정 혜 24,370 우삼이 31,690 유미숙 15,570 이민 석 28,870 이민석 35,520 이상화 22,680 이상훈 11,650 이신근 35,610 이영민 9,720 이예희 23,760	<b>부사</b> 박희순20,920 이혜경 36,930
<b>김천</b> 김천법당 29,750	<b>김해</b> 김봉숙32,050 김해법당 65,940 미전보건소 104,670	<b>부천</b> 김진만 26,440 무명 7,090 박강희 30,450 부천법당 118,070 이영주 41,930 최옥분 31,750

**부평**  
부평법당 325,780

**분당**  
무명 38,000 분당법당 158,320

**사하**  
김기을 28,050 김영미 31,150 김정숙 6,020 박선엽 12,000 반상수 8,270 사하법당 138,150 사하법당 120,330 정재금 18,660

**상주**  
상주법당 50,000 상주법당 128,320 상주법당 14,000

**서면**  
김용현 7,200 김소영 20,510 김인재 7,020 무명 35,070 신재선 5,000 임상국 4,800 전금숙 15,350 전우찬 24,920 정승미 23,490 정만봉 5,500 한명희 19,450

**서초**  
김소희 24,820 김순옥 32,100 김옥경 31,000 김유림 10,640 김장미 16,880 김정환,김민정 66,850 모두의것 50,260 무명 66,850 무명14개 294,640 무명4개 120,689 무명6개 181,600 무명8개 223,420 박경희 9,210 박병준 35,560 박숙현 28,870 박재성 297,530 박지현,정성태 4,850 박혜임 11,880 박현비,박현선 53,000 이명희 64,260 이민자 17,110 이성환 22,600 이영숙 38,480 이재민 11,030 이효수 38,060 임유진 46,040 임정복 83,800 장윤수 19,150 정지수 19,200 정미경 23,230 조경란 64,100 조용석 5,660 채귀훈 33,590

**서현**  
김복경 36,000 서현법당 33,380 정흥수 26,240

**성동**  
성동법당 53,100 신은주 33,600

**송파**  
김인덕 29,100 무명 219,750 무명 39,080 정미연

30,540 허항미 168,400

**순천**  
순천법당 70,470

**안산**  
안산법당 185,230

**안양**  
무명 31,670 무명 32,050 안양법당 124,640 안양법당 59,740 이동재 21,160 임진하 38,510 최현숙 17,000

**양산**  
양산법당 38,810

**여수**  
강수정 19,050 송홍신 40,770 신규호 46,720 유남이 48,110 이미순 18,390 이순애 63,640 장희석 21,620

**용인**  
용인법당 220,270

**울산**  
강승재 35,930 김계원 60,690 김규정 23,310 김영선 32,680 김시형 21,100 김영주 58,640 김은숙 18,320 김정민 15,770 김현정 73,030 류화현 2,330 무명 45,570 무명 26,210 무명13,150 무명 10,610 박성훈 34,330 박은선 17,490 박은선 11,230 백재선 27,920 사랑의빵3,770 사랑의빵 5,190 소비안경점 7,950 손득례 28,840 삼숙희 83,200 삼숙희 37,570 삼숙희 40,000 안소현 27,100 양승돈 23,160 윤만경 23,110 이광숙 13,090 이두남 18,690 이승경 54,380 이심교 39,360 이심교 68,580 이태남 18,330 김정영 25,710 지혜월 26,510자복자 22,570 최갈선 77,230 최운진 36,280 탐매밀리 13,590 플라워미술학원 37,510 한해화 22,930 화장품프라자 172,400 황혜주 24,150

**의정부**

의정부법당 18,940 의정부법당 63,790 의정부법당 100,750

**인천**  
인천법당 47,730

**일산**  
일산법당 213,720 일산법당 253,750 일산법당 166,250

**전주**  
권민우 30,000 배기숙 13,640 조효숙 14,300 하남순 32,840 허덕진 12,670

**정관**  
정관법당 93,000

**정읍**  
김이순 19,310 무명 34,430 무명 16,580 박경희가족 70,890 손미옥,장영웅 27,890 이윤희 15,250 장수빈 8,530 장수빈 7,080 조민주 13,180 조민주 11,480

**제주**  
강수훈26,760 강은숙 6,050 이화순 22,200 제주법당 43,960

**제천**  
제천법당 186,990

**중랑**  
김미하 30,420 김민주 16,790

**창원**  
창원법당 31,440 창원법당 63,320 창원법당 39,160

**천안**  
구창희 11,270 김수정 23,430 김형선 12,380 무명 26,000 박구환 27,660 박정인 16,020 양승례 16,500 이성순 20,750 임선미 19,540 전해영 43,250 정우진 28,110 차주화 10,343 최영미 65,100 황은실 51,770

**청주**  
기흥진 33,870 김민석 31,500 김정희 32,820 김현중 30,310 무명 24,900 박춘자 37,330 박창근 21,690 오영주 49,830 윤명상 90,160 윤희수 25,230 윤희주 24,510 임미정 29,230 정명순 30,730 청주법당 337,820

**대전**  
권오득 24,100 김자덕 11,750 아래원 23,350 임혜진 23,210 정순화 22,600

**통영**  
통영법당 29,910 통영법당 142,120

**포항**  
포항법당 96,000 포항법당 130,291

**화봉**  
화봉법당 111,070

**기타**  
강경희 57,560 길음초김민서 14,730 길음초최영인 8,370 김미숙 29,400 김정남 18,260 동삭초4-1반 26,100 배수진 46,950 심하은 29,120 우연수 15,040 우희수 15,040 은희경 17,750 이덕희20,740 입재식택지 101,920 정수연 22,350 정도법당 45,550 정도법당 14,230 정도법당71,000 조대령 96,050 최유정197,120 최유정 100,070 최유정 233,230 한승명살래 24,630

**해외 방콕정토회**  
방콕정토회140\$ 152,320

**거리 모금 현황**  
2015년 2월 1일부터 2015년 4월 31일까지  
강서 563,460 거리모금 193,000 거제 1,491,100 경기광주 690,060 경산 429,430 경주 1,203,070 계룡 87,890 광명 322,580 광주 536,571 광주 과학고 185,000 구리 373,510 구미 2,179,940 기장 115,000 기흥 235,050 김천 544,980 김해 816,430 남양주 200,790 내서 50,000 노원

1,068,700 달서 1,370,830 대구 1,506,130 대연 133,120 대전 521,250 덕산 697,070 도봉 85,920 동래 1,217,240 동작 246,210 마산 664,000 목포 191,470 문경 568,530 부사 269,460 부천 702,360 부평 153,260 분당 549,260 사하 147,350 상주 238,330 서대문 358,670 서면 170,870 서면롯데호텔강연 5,857,000 서초 934,290 서현 1,040,660 성동 357,170 수원 509,360 안동 275,300 안산 143,650 안양 314,830 안양JTS후원 약밤 4,525,352 양산 678,380 양천 411,380 영주 1,050,510 외화환전 4,450 용인 756,600 울산 307,150 의정부 271,400 인천 372,690 일산 180,920 전주 92,900 정토 207,730 정토 196,690 정토 63,300 중랑 540,540 진주 497,250 진해 338,230 창원 1,101,260 천안 1,490,400 청주 278,340 춘천 365,420 태전 47,000 평택 207,280 포항 715,350 해운대 671,390 홍성 223,710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하세요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 [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

JTS에서는 재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